■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11-044.
http://doi.org/10.17948/kcs.2023..100.011

【 특집:『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3 】

근대이전 한국 석비문 및 비지문의 문체*
—『금석집첩』·『금석속첩』을 중심으로—

심경호(沈慶昊)**

목 차

1. 서론
2. 조선시대 이전 석비문 및 비지문의 문체
3.『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탁본(탑본) 석비의 문체
4.『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탁본(탑본) 비지의 문체
5. 결어

국문초록

한국의 석비와 비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갖추었다. 7세기의 한국 비문은 한국식(이두식) 한문의 문체이거나 변문 문체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9세기 후반에는 비문을 변문으로 짓는 것이 관례로 되었으나, 고려 중엽부터 고문의 행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초기의 한국 비문은 용운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점차 정교한 용운법을 활용했다. 고려 말부터 사대부의 비지(碑誌)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고문의 서(序)와 운문의 명(銘)으로 비문을 구성하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한국의 석비와 비지는 문체의 미학을 강구하면서 사건의 기록과 망자의 평결을 정치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비문의 찬술자는 의뢰자 집단의 심정적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설득력 있는 서사(書寫) 문체를 구사해서 비문의 내용을 정돈했다. 고려 중엽까지는 서(序)에 변문 혹은 변문-산문 혼용의 문체를 활용하고 명(銘)은 환운을 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불교 비석을 제외하고는 변문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명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명을 작성했고, 명을 작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고려대 한문학과 특훈명예교수.

할 경우에는 구법과 압운을 다양하게 변환했다. 즉, 비의 사(詞)·명(銘)은 장편의 경우 4구 1전운이 많지만 불규칙한 환운, 일운도저(一韻到底)의 예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병서의 부분을 주로 고문으로 지으면서 기록성에 중점을 두고 사(詞)·명(銘)은 다양한 구조를 채용해서, 찬술자의 제술 능력을 극대화했다. 한편 정격의 구조를 지닌 비문의 병서에는 이두식(한국식) 한문이나 한글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다.

주제어: 석비(石碑), 비지(碑誌), 『금석집첩(金石集帖)』, 『金石續帖』, 고문(古文), 변려(騈儷), 이두식 한문, 용운(用韻).

1. 서론

한국에서는 상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석비와 묘비가 제작되었다. 석비와 묘비는 효용과 목적의 차이에 따라 그 비문의 양식이 다르고, 기서(記敍) 체계의 차이에 따라 문체가 분화했다. 비문은 대개 한문으로 작성했으므로, 그 찬자는 한문 기서 방식에 숙련되고 명성이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선별되었다. 석비문은 사적(事蹟)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지문은 묘주(墓主)의 일생을 기록하고 포장(褒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석비문과 비지문은 당대 사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의 지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석비문과 비지문은 사건이나 인물, 사물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으려는 미학적 관념이 개입되었다. 상고시대의 석비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석비의 서사문체와 수사방식에 관한 문학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를테면 895년(진성여왕 9년) 조성된 「해인사묘길상탑지」의 제1판은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것인데, 전반부는 4언 제행으로, 각구압운, 매2구환운의 방식을 사용하되 그 이하는 산행의 산문을 사용하면서 변체의 평측을 도입한 특이한 문체이다. 최치원의 이른바 사산비명이서-변려[혹은 변산(騈散) 혼용], 명-환운의 문체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운산(韻散) 겸용, 제행산행(齊行散行) 병용을 결합함으로써 문체를 실험했다.

『금석집첩(金石集帖)』과 『금석속첩(金石續帖)』은 고려·조선의 '묘비(墓碑)류'와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류'를 망라하려고 의도한 거질의 탁본첩이다.

물론 그 의도가 탁본 수집에 충분히 구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 2000여 점의 탁본을 수록하여 조선 최대의 탁본 집성을 이루었다. 묘비류는 왕실과 사대부만이 아니라 무장·여성·중인의 비지와 승려의 탑비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 탁본첩에는 지석이 적어, 일반적으로 묘도문자로 통칭되는 비지 가운데 묘비만을 표제에 부각시킨 것이다.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류'는 본고에서 말하는 협의의 석비로, 기공비·신사비·전몰비·기념비 등을 포괄한다.[1)]

본고는 『금석집첩(金石集帖)』과 『금석속첩(金石續帖)』에 수록된 탁본(탑본)을 중심으로 석비 및 비지에 사용된 비문의 문체적 특징과 역사적 변화 양상을 개괄하고자 한다. 특히 서술문체가 완결된 형식을 지닌 석비(石碑)와 비지(碑誌)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이전 석비문 및 비지문의 문체

석비문과 비지문의 문체를 논할 때 주의할 기준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기서(記敍) 혹은 서사(書寫)라고 부를 수 있는 글쓰기의 문체. 근대이전의 석비와 비지는 명(銘)만으로 이루어진 예, 산문[변문 혹은 변산 포함] 기록만으로 이루어진 예, 산문[변문 혹은 변산 포함] 병서(幷序)와 명(銘) 혹은 사(詞)로 이루어진 예 등이 많고, 드물게는 시(詩)만을 새긴 예도 있다. 병서는 한국식(이두식) 한문으로 작성한 예, 문언문(고문)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식(이두식) 한문을 혼합 사용한 예 도 있다. 명(銘) 혹은 사(詞)의 경우, 제언(齊言)의

1) 육당문고본 『금석록』에 따르면, 『금석집첩』 및 『금석속첩』은 묘비(墓碑)류와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류를 나누어 탁본을 수록했다. 묘비류에는 능비(陵碑)·능표(陵表)·원표(園表)·추부표(追祔表)·신도비(神道碑)·묘비(墓碑)·묘표(墓表)·묘갈(墓碣) 등이 있으며, 묘표(표), 묘비 및 묘갈(갈), 신도비(비)가 주류를 이른다. 단, 묘방비(墓傍碑)·충렬비(忠烈碑)·순절비(殉節碑)·선영비(先塋碑) 등도 있다. 본래 묘비로 분류되지 않은 '범비묘비(凡非墓碑)'에는 '교원(校院)·사묘(祠廟)·여허(閭墟)·성대(城臺)·교장(校場)·전장(戰場)·기사(紀事)·유애(遺愛)'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궁전비(宮殿碑)·구리비(舊里碑)·기적비(紀蹟碑)·기사비(記事碑)·사적비(事蹟碑)·사실비(事實碑)·유허비(遺墟碑)·하마비(下馬碑)·주필비(駐蹕碑)·어필별유비(御筆別諭碑)·어제비(御製碑)·어제현판(御製懸板)·윤음현판(綸音懸板)·어제제문(御製祭文)·지주비(砥柱碑)·충렬비(忠烈碑)·서원비(書院碑)·사비(祠碑)·정려비(旌閭碑)·순절비(殉節碑)·순의비(殉義碑)·문비(門碑)·유사비(遺事碑)·추애비(追哀碑)·은포비(恩褒碑)·제단비(祭壇碑)·효자리비(孝子里碑)·망주소각만시(望柱所刻挽詞)·망주소각만사별장(望柱所刻挽詞別章) 등이 있다. 具資訓·韓珉燮, 「金在魯『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研究』 21, 韓國實學研究會, 2011.

운문이 대부분이되, 단형의 일운도저(一韻到底), 중장형의 일운도저나 환운(換韻)이 많고, 간혹 산행(散行)의 운문이나 무운을 사용하기도 했다.

둘째, 석비의 기적(記蹟)은 과거 사실의 평가를 수반하고 그 사실의 현재적 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지의 경우는 비주(묘주)의 생평 서술과 함께 그의 행적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도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자료의 초촬과 특정 이념의 제시 등에서 작성자의 의도를 개입시켜 편장 구조를 확정할 뿐 아니라, 이념의 은현(隱現) 표출 방식을 구사하고, 포폄(褒貶)의 미언(微言)을 선택했다. 삼국-신라 시기 승단과 국가가 수립한 불교 관련 석비에서는 불교 이념과 통치 논리의 교직(交織)이 두드러지고, 고려 중엽 이후 춘추통감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른바 서법(書法)이 중시되었다. 자료의 초촬과 특정 이념의 제시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때, 단순 편년 서술, 가장(家狀)·행장(行狀)이나 풍토기(風土記)·연기문(緣起文) 류의 직간접 인용, 인성론 및 문명론, 혹은 국시(國是)·통서(統緖) 관념의 제시, 일화의 단편적 삽입이나 본격적인 후술, 예화(例話)의 부기 등 다양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기준 가운데 특히 첫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이전 석비 및 비문의 문체 변화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2)]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석비 및 묘비에 새겨진 비문은 비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문체가 달랐다. 「덕흥리고분묘지」(408년)는 고분 벽면에 4언 제언 골간의 한문으로 묵서되어 있다. 불교산문 문체와 유사하되, 허사나 개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이에 비해 414년의 「광개토대왕릉비」는 기적비(紀蹟碑)의 기능을 지녔다. 광개토왕의 신이한 출생담, 영토 확장의 공적에 관한 서술을 한 뒤에 수묘(守墓)에 관한 긴 유언을 첨가했다. 문체는 평서문의 직서체이며, 허사를 이용한 고문체이되, 종결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본문의 중간에 사(辭)를 두었으나 압운을 의식하지 않았다. 6언 대우와 4언 제행을 섞은 변문 투식이 일부 확인되지만 평측교호법이나 염률(簾律)을 계산하지 않았다. 훈적 기서는 편년체 기록물을 토대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묘

2)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일조각, 202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새로운 견해를 더하여 정리한다.

규정은 교명(敎命)을 적록하고 규례를 포고하여 관용구의 수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역동사 '敎遣'을 사용한 점과 명령문 끝에 '之'를 사용한 점은 한국 한문의 특징을 드러낸다.

6세기 전반의 무령왕 묘지(墓誌)와 왕비의 묘지는 날짜 기록에 남조 송나라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하고 삭일법(朔日法)을 따랐다. 왕의 죽음을 '붕(崩)'이라 하고 왕비의 죽음을 '수종(壽終)'이라 하여 구별했고, 거상(居喪)·개장(改葬)·환(還)을 구별했다. 「무령왕묘지」·「무령왕비묘지」나 매지권은 단형의 기서문일 뿐, 압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6세기 초 낙랑 왕씨의 묘지명 4점이 모두 서(序)[지(誌)]-명(銘)[사(辭)]으로 이루어지고, 지(서)에서 4언-6언 대우를 취한 것과 전혀 다르다.

한편, 석비에는 이두어를 사용하거나 이두 토를 사용하는 한국식 한문의 비문을 새긴 예들이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첫 줄과 둘째 줄 앞부분의 "新羅寐錦, 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가 4언 제행이기는 하지만 변문의 염률을 애당초 의식하지 않았다. 5회에 걸쳐 사용된 '敎'자는 사역동사의 이두식 표기인 듯하다. 「임신서기석」은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와 한자어를 점철했다. 6세기 울주 천전리 각석, 788년경 제작 갈항사지(葛項寺址) 석탑기는 고유글자, 이두문자, 속자를 사용했다. '영동리촌(另冬里村) 저수지[且只塢]'를 축조하고 세운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의 비문은 당시 이두문 기서체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고려 초 자적선사(慈寂禪師) 홍준(弘俊)을 위해 세운 「고려국상주명봉산경청선원고교시자적선사능운지탑비명병서(高麗國尙州鳴鳳山境淸禪院故敎諡慈寂禪師凌雲之塔碑銘幷序)」는 비양(碑陽) 글은 최언위가 지었고 서는 변문, 명은 운문이지만, 비음(碑陰)의 도평성 첩문은 한국어 어순이고 조사나 어미에 이두를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도 한국식(이두식) 한문의 비문이 작성되었다. 1788년 부산 동래에 건립된 「부사이경일축제혜민비(府使李敬一築堤惠民碑)」는 단위사로 이두어를 사용했고 서리 공문의 어휘들을 점철했다. 1808년 경상도 관찰사 조엄(趙曮)을 위해 범어사 승려들이 세운 「순상국조공엄혁거사폐영세불망단(巡相國趙公曮革祛寺弊永世不忘壇)」 비문은 공문서 투식과 한국어 술목 구조를 따른 구문을 섞어 사용했다.

한편, 7세기 중반에는 한국의 각종 기서(記敍)에 변문이 도입되었다. 654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의 비문은 변문의 투식을 도입한 조기(早期)의 예이다. 염률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사륙문 대우와 평측 교호의 변문 투식을 도입했다. 670년에 강수(强首)는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를 「설인귀서」의 예에 준하여 변문으로 작성했다. 7세기 말에 변문의 투식이 대대적으로 수용되고 8세기 초에는 변문으로 비문의 기서 부분을 찬술하는 관습이 형성되었다. 682년 경주 사천왕사에 건립된 「신라문무왕릉비(新羅文武王陵碑)」는 4언 제행을 사용했으나 대우(변우)의 중첩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694년 이후 제작된 「김인문묘비(金仁問墓碑)」는 변문과 문언어법 산문을 혼용하되, 4자구와 6자구로 골간을 이루고, 연결사 之, 而, 以를 이용한 구절도 대우(對偶)를 의도했다. 8세기에는 변문이 상급 문체로 정착되었다. 발해에서도 「정혜공주묘지명병서(貞惠公主墓誌銘幷序)」와 「정효공주묘지명병서(貞孝公主墓誌銘幷序)」는 기서 부분에 변문을 이용했다. 두 묘지명은 행문(行文)이 같다.

한편, 신라 법흥왕14년(527)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고자 '元和十三季戊戌' 즉 818년(憲德王 10)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석당(石幢) '이차돈 순교비' 비문은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4언 중심의 불교한문, 대화체 다용의 문체를 사용했다.[3] 단, 4언 중심으로 정연하게 규격화하지 못한 곳도 있는 반면에, 4언으로 무리하게 정렬하여 오히려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되거나 대화문의 수신자를 밝히려고 하여 어법상 기이하게 된 곳도 있다. 이 석당기는 『삼국유사』 권3 '원종흥법 염촉멸신(原宗興法 厭髑滅身)' 수록 '원화중(元和中) 남간사사문(南澗寺沙門) 일념(一念) 찬(撰) 「촉향분예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文)」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일념의 결사문이 변문 투식을 다용한 고문으로 작성한 것과 문체가 전혀 다르다.[4]

3) 7세기에 변문이 발달해서 불교의 글에도 활용된 사실과는 경향이 다르다. 이를테면 원효(元曉, 617-686)는 게송을 남겼으나, 시는 거의 남기지 않았고, 불교 관련 문장은 변문으로 작성했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의 경소(經疏)에 쓴 「본업경소서(本業經疏序)」를 보면, 변문의 구식을 모범으로 하면서 일부 염률을 지켰다. 元曉, 「本業經疏序」, 徐居正等, 『東文選』 卷83; 심경호, 「한국 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225-300면;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4) 심경호, 「이차돈순교비 비문 해독과 문체에 대하여」, 2023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최치원은 885년 귀국 이후 「대숭복사비명(大崇福寺碑銘)」을 비롯하여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尙白月葆光塔碑)」,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등 비명을 작성하면서, 할렬어와 복합어를 복잡하게 활용했다. 896년 완성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대숭복사비명」은 서(序)에서 변우(駢偶)를 다용하여 평측 교호법과 염률을 지켰다. 하지만 다른 세 탑비문은 기왕의 문헌을 중심을 근거로 문장을 구성하여, 변우의 투식과 함께 문언어법의 고문을 활용하여, 심지어 변문 투식의 구문이 특정 부분에 한정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최치원은 「오대산묘길사탑비」에서 한 문장 안에 4언 운문, 고문, 변문 투식을 혼용하여 문체를 실험했다.

이에 비해 고려 초의 탑비문은 서에서 변문을 사용했다. 고려 초 최언위(崔彦撝)는 11편의 비문을 남겼는데, 943년 건립된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淨土寺法鏡大師碑)의 「유진고려중원부고개천산정토사교시법경대사자등지탑비명병서(有晉高麗中原府故開天山淨土寺敎諡法鏡大師慈鐙之塔碑銘幷序)」, 954년(고려 광종 5) 건립된 태자사낭공대사백월탑비(太子寺朗空大師白月塔碑)의 「신라국고양조국사교시낭공대사백월서운지탑비명(新羅國故兩朝國師敎諡朗空大師白月栖雲之塔碑銘)」은 모두 서가 완전한 변문이다. 고려시대에 사대부 묘에는 묘지를 묻었는데, 중엽 이후 지문의 서(序)는 문언어법-고문의 산문이 중심으로 되었다.

다만, 고려 중엽 이후 조선시대에 걸쳐 찬술된 비문에서 고문에 변려의 투식을 교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금석집첩』에는 그 탁본을 수록하지 않았지만, 유몽인(柳夢寅, 1559-1623) 찬술 「자헌대부한성부판윤최공묘갈명병서(資憲大夫漢城府判尹崔公(俊海)墓碣銘幷序)」의 병서는 묘주 최준해(崔俊海)의 선행 일화를 중첩한 부분에서 특이하게도 변문을 사용했다.[5] 역시 『금석집첩』에 그 탁본이 없지만,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의 「남해대둔사사적비명(南海

『이차돈순교비: 그 가치와 비면에 대한 새로운 탐구』,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 주최,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강당, 2023.8.11.

5) 비문은 선행의 응보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묘주를 그 전형으로 규정한 후 묘주의 선행 일화를 중첩하고, 묘주의 졸장(卒葬), 가계와 자손록, 선행의 응보로서의 후손 번영, 비문 찬술의 동기와 축원을 차례로 적었으며, 명(銘)은 4언 12구 3전운 형식을 취했다.

大芚寺事蹟碑銘)」의 서는 변문으로 작성했다. 구말 평측의 교체법과 염률을 지켰을 뿐 아니라 각 구 안의 평측까지 교호법을 준수했다.[6]

비문에 운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신라 중엽 이후 관례로 정착되었다. 낙랑 금석문이 일찍부터 압운을 한 것과 달리, 조선 한문학 형성기의 비문은 뒤늦게 압운법을 채용했다. 진위를 의심받는 「점제현신사비」의 경우, 서에 이어 총 82자의 운문의 사(辭)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는데, 「광개토대왕릉비」는 압운의 명을 두지 않았다. 신라에서는 7세기 중엽 이후 압운의 방식을 중시했다. 719년의 「감산사미륵조상기(甘山寺彌勒彫像記)」, 771년의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鐘銘)」의 사(詞)는 환운범을 채용했다. 9세기 말 최치원은 사산비명의 명에서 여러 형식의 용운법을 활용했다. 즉, 「대숭복사비명」은 4언 64구로 8회 환운했으며 격구압운이다. 「낭혜화상비명」은 서수(序首)와 9수로, 서수는 각구 압운의 사구게(四句偈), 제1수부터 제9수는 5언 8구 격구압운・수구입운이다. 「진감선사비명」은 4언 40구, 매 8구 환운, 격구압운・수구입운이다. 「지증대사비명」은 7언 44구 매구압운의 백량체(柏梁體)이다. 한편 발해의 「정혜공주묘지명병서」는 명을 4언 4운 6수로 작성했고, 「정효공주묘지명병서」는 그 명을 분장 없이 답습했다.

고려 중기 이후의 석비나 묘비는 정제된 한문을 활용해도 제행과 배비구를 중첩하지 않았다. 대부분 서(序)와 명(銘)으로 구성하고, 서는 서사(敍事), 명은 찬(贊)의 기능을 위주로 했다. 고려 초 최언위가 작성은 「태자사낭공대사백월탑비명」의 비문에서 사(詞)는 4구 1전운 형식이다. 이성미(李成美)가 찬술한 「이자연묘지명(李子淵墓誌銘)」에서 명은 입성 설(屑)운을 일운도저・격구

6) 蔡彭胤, 「海南大芚寺事蹟碑銘」(四六), 『希菴先生集』 卷24 碑銘; 梵海覺岸編, 『東師列傳』 수록, 「頭輪大師傳」.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탁본의 전액은 '頭輪山大芚寺事蹟碑', 비제는 '朝鮮國全羅道海南縣頭輪山大芚寺事蹟碑幷序'이며, 비제 다음 행에 '通政大夫原任承政院左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官修撰官察彭胤述幷序'라고 했다. 병서의 마지막에 "한 조각 비석이 두타를 위한 것이니, 간서(簡棲)의 사육변려문 비문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간서'는 「두타사비(頭陀寺碑)」(『文選』 수록)를 사육변려문으로 왕간서(王簡棲)로, 본명은 왕건(王巾), 간서는 자(字)이다. 비는 1728년(영조 4) 건립되었으나, 구비가 마모되자 1744년 4월 승려 화명(畵溟)이 채팽윤의 조카 채응만(蔡膺萬)으로부터 당초의 전본(鐫本)을 얻어 모각했으며, 1803년(순조 3) 새 비가 건립되었다. 채팽윤의 글은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편 『동사열전(東師列傳)』에 「두륜대사전(頭輪大師傳)」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압운 형식이다. 100여 년 뒤 보문각대학사동수국사(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로 치사한 김훤(金晅)은 스스로 묘지명을 짓고 용운의 명 4장을 붙였다. 12세기에는 관료 문인들의 묘지가 묘지명 양식으로 바뀌고 서의 내용도 풍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석비든 비지든 대개 고문의 서와 운문의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다. 단, 신도비에 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일부 묘비는 산행의 명에 운자를 사용했다.

3.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탁본(탑본) 석비의 문체

『금석집첩』·『금석속첩』의 '범비묘비제기사(凡非墓碑諸紀事)류'는 주로 조선시대 건립된 여러 양식의 석비를 망라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는 비문의 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야를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석집첩』의 수집가는 조선시대에 선대 왕조를 위해 세운 기념비에 관심을 두어, 그 탁본들을 수집했다. 특히 001天 책에 탁본을 정리해 두었다.[7]

18세기 후반에 국왕 영조와 정조는 기적비와 공적비 건립에 힘을 기울였다. 『금석집첩』은 그 비석의 일부 탁본을 수록했다. 영조 명으로 1740년(영조 16) 건립한 「선죽교비」와 「두문동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8]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에 걸쳐 조선은 왕가 관련 사적비를 많이 세웠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탁본 188첩 가운데 왕가 사적비 탁본이 27종이나 된다. 『금석집첩』에 탁본이 있는 비석은 「달단동승전기적비(韃靼洞勝戰紀蹟碑)」와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이다. 다만 왕실 기적비가 탁본 수집 시기보다 뒤에 건립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금석집첩』에는 왕실 기적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7) ①「崇仁殿碑銘(幷序)」. 李廷龜奉敎撰, 金玄成奉敎書, 金尙容奉敎篆. 萬曆41年(광해군 5년 계축, 1614) 3월 金蓋國奉敎立石. ②「箕子宮舊基」. 李廷濟識, 李眞洙書. 乙巳(영조 원년, 1725) 2월. ③「新羅始祖王墓碑銘(幷序)」. 趙觀彬撰, 洪鳳祚書, 俞拓基篆. 崇禎紀元後三乙亥(영조 31년, 1755). ④「東明王墓」[佚本文]. 崇禎紀元後104年辛亥(영조 7년, 1731) 12월. ⑤「駕洛國首露王陵」. 許積識, 全△榮書. ⑥「駕洛國首露王妃普州太后許氏陵」. 이 가운데 「崇仁殿碑銘(幷序)」에 대해서는 심규식, 『광해군시대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3 참조.

8) 『금석집첩』 178談 책에 「御製御筆善竹橋碑」(1740년 겨울 건립)과 「御製御筆杜門洞碑」(1751년 건립)의 탁본이 있다.

또한『금석집첩』에는 전승비와 평난비의 탁본들이 수집되어 있다.

① 144方「李忠武公(李舜臣)鳴梁大捷碑」.
② 175莫「荒山大捷碑」.「矗石旌忠壇碑」.「中和三陣忠義碑」.
③ (176忘-실전)「延城大捷碑」.
④ 178談「李忠武公(李舜臣)高下島記事碑」.
⑤ 179彼「柏田平安監司洪公(洪命耉)忠烈碑(無陰)」.「栢田平安兵使柳公(柳琳)勝捷碑」.
⑥ 186使「節度申公(申砬)淸邊碑」.「忘憂堂郭公(郭再祐)墓碑」.
「晉牧金公(金時敏)全城卻敵碑」.
⑦ 180短「洪洪州(洪可臣)淸難碑」.「吳公(吳命恒)安城平賊頌功碑」.
「東萊戰亡遺骸碑(無前)」.「統制使崔公(崔儒)事蹟碑」.
⑧ 181靡「李龍川(李希建)忠烈碑(無前)」.

명량대첩비는 1597년(선조 30) 9월의 대첩을 기념하는 비석으로,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1686년(숙종 12) 예조판서 이민서(李敏敍, 1633-1688)가 찬술했다. 글씨는 이정영(李正英)이 해서로 썼으며,[9] 1688년(숙종 14)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박신주(朴新胄)가 건립했다. 이민서의 명량대첩비 비문은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 진을 치고, 우수영과 진도 해협의 급류를 이용하여 왜적 선단을 격파한 전황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일(李鎰)·신립(申砬)의 패전을 대비시키는 한편, 연안·행주의 승전은 중국 군대에 힘입은 데 불과하다고 논평했다.[10] 이러한 비교 서술의 문체는 기적비나 공적비에서 유례가 드물다. 이민서의 평가는 공론을 반영한 것으로, 후대의 평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11] 이순신의 품행과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역

9)『금석집첩』144方책에 탁본이 있다. 전제(篆題)는「統制使忠武李公鳴梁大捷碑」이고, 비제는「有明朝鮮國統制使贈諡忠武公鳴梁大捷碑」이다. "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李敏敍撰,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李正英書, 崇政大夫行知敦寧府事兼知經筵事同知春秋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金萬重篆"이다. '崇禎後乙丑三月 日書. 嘉善大夫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朴新胄戊辰三月 日立. 監役出身韓時達'이라고 새겨져 있다. 또한 李敏敍,「故統制使李舜臣鳴梁大捷碑」,『西河集』卷14 碑銘 참고.

10) 自李鎰申砬敗後, 官軍及義軍, 遇賊輒奔潰, 無敢畧齟齬其鋒者. 及天子遣大兵來救, 大震殲, 次第復三都, 然後我軍稍稍掎角之. 如延安幸州之捷, 雖一時稱雋, 然皆籍天兵威重, 僅能嬰城拒守得全, 未有獨當一面鏖戰全勝如公之爲者也.

11) 公平居循循雅飭如儒士, 及其臨難討賊, 決策出奇, 雖古名將不能過, 而忠義奮發, 有可以貫日月而感鬼神者. 是以所在克捷, 威愾鄰敵, 義動中國. 若公者乃古所謂眞將軍可屬大事者, 非專以一時取勝爲可貴也. 其行己之大方,

사서와 다른 비명(碑銘)에 갖추어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 비석의 기록과 평가가 중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언한 것이다. 사(詞)는 초사체이면서, 각 구 압운하고 2구마다 환운한 7연 14구이다.[12] 한편 이순신 신도비로는 1693년(숙종 19) 김육(金堉)이 찬술한 글을 입각(入刻)하여 건립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1793년(정조 17) 7월 21일 이순신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한다고 전교하고, 신도비명을 친히 지어 비석에 새기게 했다.[13] 1795년(정조 19) 5월 11일, 정조 친제의 「상충정무비(尙忠旌武碑)」 인쇄본을 나누어 주었다.[14] 정조는 송나라 부필(富弼)을 위한 비석의 비제(碑題)를 전자(篆字)로 올렸던 예를 본떠 비제 '상충정무지비(尙忠旌武之碑)'를 전자로 쓰게 하고, 비문은 안진경(顔眞卿)의 「곽자의가묘비(郭子儀家廟碑)」에서 집자하도록 했다. 1794년(정조 18) 전라감사 이형원(李亨元)이 이 신도비명을 새겨 비석을 세웠고, 내각(內閣)이 그 탁본을 장황해서 정조에게 바쳤다. 정조는 12월 5일 이순신을 위한 치제문을 지어 내리고, 새로 인쇄한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를 이억기(李億祺)와 정운(鄭運)의 집안에 나누어 주게 했다.[15]

조선 시대에는 각 지역에 성곽을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다. 문헌상으로는 홍적(洪迪, 1549-1591)이 1583년 장연 현감으로 부임하여 1586년 장연성(長淵城) 수리를 마치고 세운 「장연성갈지(長淵城碣誌)」가 이른 시의 예인 듯하다. 성역(城役)의 경위, 성의 규모, 시설, 공사 책임자 등을 간단히 기록한 글이 홍적의 『하의유고(荷衣遺稿)』에 전한다.[16] 『금석집첩』에 수록된 제방 및

用兵之大畧, 國史及他銘述備矣.

12) 사(詞)는 다음과 같다. "鳴梁口兮隘而束, 海潮蹙兮汨兩峽. 兵因地兮利出奇, 藐羣醜兮勢莫支. 士卒奮兮鼓方震, 俄殲賊兮蕩餘燼. 惟將軍兮勇義俱, 扼海道兮海無虞. 怒濤擊兮蛟鯨趁, 觀戰地兮想英謨. 靈皇皇兮赫海隈, 呵星辰兮走風雷. 海不竭兮石不泐, 昭壯烈兮耀無極."

13) 무령왕(武寧王) 서달(徐達)의 비석을 황제가 직접 글씨를 쓰고 유사(有司)가 입비했듯이 하라고 명했다. 『正祖實錄』, 『日省錄』 정조 17년 계축(1793, 건륭) 7월 21일(임자).

14) 『正祖實錄』, 『日省錄』 정조 19년 을묘(1795, 건륭) 5월 11일(신유).

15) 이순신 신도비는 현재 충남 아산시 염치읍(鹽峙邑) 백암리(白巖里)에 있다. 서울대 도서관 편,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7집 史部 4, 1984; 최경민, 「북관대첩비개요와 내용」,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소개, 2005; 장서각 자료센터, 「상충정무지비(尙忠旌武之碑)」.

16) 癸未秋, 余受命淵康鎭, 署牘已, 吏以城圮告. 越二年, 請方伯, 得軍一千一百九十, 役未幾, 命停之, 爲大

교량 영건비, 성곽 증수비 등의 탁본으로는 다음 예들이 있다.

① 178談「金堤碧骨堤碑」.「黃州城改築碑」(無前),「丹陽羽化橋碑」(無前).
② 179彼「東林舊城碑」(無前).
③ 180短「鉄瓮築城碑」.「嶺營築城碑」.「海營築城碑」.
④ 181靡「咸興城重修碑」.[*陟州東海碑『금석록』저록. 현재의 탁본 법첩에 없음]
「金剛山百川橋重創記」.「百川橋重創記碑」.「鄭府使(鄭弘佐)龍骨山城改築碑」.
「平壤永明寺重修碑」.

이 가운데 180短 책의「철옹축성비」는 1684년(숙종 10) 영변 철옹성 북성 증축 때 건립된 것이다.[17] 비문은 류상운(柳尙運, 1636-1707)이 짓고 본부 유학(幼學) 김구성(金九成)이 글씨를 썼다. 류상운이 찬술한 비문은, 신익상(申翼相, 1634-1697)이 '찬성(贊成)'하여 철옹성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특필했다. 하지만 신익상은 7월 27일 부제학에 제수되고, 류비연(柳斐然)이 후임으로 와서 개축을 마무리지었다. 류상운이 지은「철옹축성비」는 운문의 명이 없다. 제1단은 철옹성을 축성하게 된 경위를 적었다. 즉, 태종 16년(1416) 도안무사 신유정(辛有定) 왕명에 따라 30,600명을 동원하여 27일 만에 31리 둘레의 성을 쌓고, 황희(黃喜)의 건의로 연주·무주를 합하여 대도호부로 삼은 사실, 숙종 9년(1682) 겨울 용계군 이광한(李光漢)이 부임하여 다음 해 8월 본부 백성과 군인 3,000명을 동원하여 약산 아래 새 성을 수축한 사실을 차례로 밝혔다. 제2단에서는 운산군수 이집(李諿), 희천군수 장한상(張漢相), 태천현감 한신철(韓信哲) 등이 조력하고 네 고을 군인 10,400명이 2월 1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4일 만에 완료한 사실을 적었다. 제3단에서는 옹성 이외의 시설을 간결하기는 하지만 빠짐없이 열거했다. 제4단은 방백의 장계에 의거해서 개축 관여자들이 승자되거나 승진된 사실을 밝혔다. 제5단은 방백 류비연(柳斐然)의 출자로 비석을 세우게 된 사실을 말했

侵也. 翼年二月, 又得軍如前數, 逮四月末, 功告成. 其延袤, 準營造尺四千四百五十九尺, 其高南凡二十七尺, 東西北十六尺, 女墻百八十三也. 所江宋僉使德潤, 主其事. 邑人之力于此者, 咸列名石陰. 嗚呼! 由我者人, 不我者天. 城之千萬世, 未敢知. 其不能千萬世, 亦莫知也. 吾於後之人, 惟不任其成毁是望云爾. 萬曆紀元之十四年丙戌五月日, 朝奉大夫行縣監節制都尉兼春秋館記事官, 唐城後人荷衣洪迪識.

17) 철옹성의 원래 이름은 영변철옹성이고, 영변산성이라고도 한다. 약산성과 본성은 고구려 때 쌓은 것이고 신성은 1683년 본성 안의 서남부에, 북성은 1684년 본성 안의 서북부에 쌓았다.

다.[18] 류상운의 비에서, 약산성을 개축한 것이 '簣汁之憂'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미상이다. 한족이 저항하면 청나라가 중원을 떠나 본거지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 조선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 개마고원을 경유하여 백두산 쪽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뜻인 듯하다.

『금석집첩』의 편찬자들은 1639년(인조 17) 건립의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대청국지성한지공덕지비(大淸國之聖汗之功德之碑)]는 탁본을 채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관왕(관우), 제갈무후(제갈량), 악무목(악비), 명나라 무인 등을 위한 비석의 탁본들은 충실하게 수집했으며, 명나라 무장이나 사신을 위한 거사비의 탁본들도 함께 수록했다. 정묘호란 뒤에는 동관왕묘와 남관왕묘만이 아니라 안동과 고금도 등에서 관왕묘가 건립되었는데, 『금석집첩』 186使 책에는 「안동관왕묘비(安東關王廟碑)」와 「고금도관왕묘비(古今島關王墓碑)」(無前)의 탁본이 있다.

『금석집첩』 185信 책에는 「어제어필관왕묘비(御製御筆關王廟碑)」를 4점 수록했다. 즉, 1785년 정조가 4조(숙종·영조·경모궁·정조)의 어제를 새겨 동묘와 남묘에 세우도록 한 비석의 비문들을 탁본했다. 정조는 숙종 도상명(圖像銘)에 차운하여 묘비명을 지었다. 「숙종대왕관왕묘비」와 「영조대왕관왕묘비」는 서무(西廡)의 비석 앞 뒤에 새기고, 「경모궁관왕묘비」와 「장조의황제관왕묘비(莊祖懿皇帝關王廟碑)」는 동무(東廡)의 비석 앞뒤에 새겼다. 비제는 「대한조충절무안왕찬양명(大漢朝忠節武安王贊揚銘)」, 「현령소덕무안왕묘(顯靈昭德武安王廟)」, 「무안왕묘비명(武安王廟碑銘)」(2基)이다. 「무안왕묘비명」의 하나는 '경모궁예제예필(景慕宮睿製睿筆)'로, '임신년(1752년) 삼가 지었다[歲壬申謹撰]'라고 밝혔고, 다른 하나는 '당저신장 홍재(當宁宸章弘齋)'라고 밝혔다. 후자는 정조가 즉위 9년째 되던 을사년(1785) 동짓달에 찬술하고 전서(篆書)와 함께 태상시(太常寺)에 넘겨주었는데, 정조는 이 글을 영신(迎神), 송신(送神) 그리고

18) 비의 뒷면에는 성역도감, 천주사 성조도감, 대시주, 양향도감, 성역색, 대포색, 성조색(成造色), 양향고직, 도화주의 이름을 나열했다. 양향고직은 '통정 노 지토리(只土里)', 도화주는 '전 총섭승(摠攝僧) 지운(智運)'이다. 송시열의 현손 송능상(宋能相, 1709-1758)이 1758년 6월 유람와서 기록한 내용이 추각되어 있다. "宋能相. 東海宋子, 來遊兩西, 究觀三朝鮮舊蹟, 考求其制度之所極. 歷此以往太伯山. 時戊寅六月也.[藥山碑北]" 『금속집첩』 탁본에는 음기가 없다.

전헌(奠獻)의 악가(樂歌)로 쓰도록 명했다. 장헌세자(경모궁)의 비명은 4언 44구로 격구마다 평성 동(東)운을 일운도저했고, 정조는 충실하게 차운(次韻)했다.[19]

숙종, 영조, 정조는 조선의 왕통이 심법(心法)을 전수해 왔다고 선언하고 왕실의 돈목(敦睦)과 국왕의 효치(孝治)를 선전했다. 앞서 1658년(효종 9) 5월 13일 인평대군 이요(李澆)가 죽자 6월에 효종은 죽은 아우를 위해 장편 고문의 유제문을 작성해서 사제(賜祭)했다. 숙종은 효종의 돈목을 부각시키면서 인평대군을 위한 치제문을 4언 운문으로 지었다. 1680년 경신환국 때 인평대군의 아들 삼형제[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복평군(福平君) 이연(李橏), 즉 삼복(三福)]가 역모죄로 죽었지만, 1693년(숙종 19) 인평대군 천장 때 숙종은 4언 운문의 제문을 친제했다. 1724년(경종 4) 경종은 앞면에 효종 유제문(諭祭文)을 새기고 뒷면에 숙종 치제문(致祭文)을 새긴 비를 세웠다. 영조는 1773년에 4언 운문의 치제문을 지어, 효종과 인평대군의 우애를 강조하고, 삼복(三福)의 죄과를 사실상 탕척해 주었다. 1792년(정조 16) 정조도 4언 운문의 치제문을 친제하고 인평대군 묘소에 치제했으며, 나아가 숙종의 치제문, 영조의 치제문, 친제문을 함께 새긴 비를 세우게 했다.[20] 『금석집첩』 009日책에 「효묘제인평대군문(孝廟祭麟坪大君文)」만 들어 있다.

한편 정묘호란 직후에 조선은 명나라의 '재조(再造)' 공로를 추억하고 그로써 청나라 성립 이후 새로운 화이론을 선점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조정은 명나라 장수나 조사들을 위해 거사비를 세우는 일에 정성을 들였다.[21]

---

19) 莊憲世子, 「武安王廟碑銘」, 『凌虛關漫稿』 卷7 碑銘; 正祖, 「武安王廟碑銘」, 『弘齋全書』 卷15 碑.

20) 경기도 포천 인평대군묘 곁에 두 비가 있다. 1724년(경종 4) 앞면에 효종 치제문, 뒷면에 숙종 치제문을 새긴 비가 있고, 1792년(정조 16) 앞면 상단에 영조, 중단에 정조, 하단에 순조의 치제문을 각각 새긴 비가 있다.

21) 『금석집첩』 수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74能: 「永柔武侯祠碑」. 「永柔岳武穆王文忠烈公追配碑」. (176忘-실전: 「天使迴灤石題刻」.) 177罔: 「宣武祠(楊鎬)去思碑」. 「都督(洪省吾・劉綎)題名碑」. 「都督(劉綎)題名碑」(二). 179彼: 「望日思恩碑(明提督李公)」. 「遊擊將藍公(藍芳威)碑」. 「委官林公(林濟)碑」. 181靡: 「天將(張良相)東征詩碑」. 183德: 「淸鎭南將軍(吳蟒)表」(無前). 186使: 「安東關王廟碑」. 「古今島關王墓碑」(無前). 「楊經理(楊鎬)去思碑」. 「釜山萬經理(萬世德)勝戰碑」(無前). [「大唐平百濟碑(無陰)」도 수록]. 185信(續): 「肅宗御製御筆大漢朝忠節武安王贊揚銘」. 「英祖御製御筆顯靈昭德武安王墓碑」. 「景慕宮睿製睿筆武安王廟碑銘」. 「正祖御製御筆武安王廟碑銘」. 199羔: 「天將(吳惟忠)去思碑」. 「天將(吳宗道)去思碑」. 「欽差都司

『금석집첩』 177면 책 「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 186使 책 「양경리거사비(楊經理去思碑)」, 199羔 책 「천장오유충거사비(天將吳惟忠去思碑)」, 「천장오종도거사비(天將吳宗道去思碑)」, 「강왕이조사거사비(姜王二詔使去思碑)」 등은 관련 비석들의 탁본들이다. 「양호거사비」와 「양경리거사비」는 명나라 장수 가운데 특히 양호(楊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후자의 제액은 「경리조선우첨도어사양공거사비(經理朝鮮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 비제는 「황명흠차경리조선군무도찰원우첨도어사양공거사비명 병서(皇明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銘幷序)」로, 이정귀(李廷龜)가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씨 쓰고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썼다. 『금석집첩』이 양호 거사비의 탁본을 수록한 것은 당파적 관점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왜란 때 정응태(丁應泰)는 양호가 공적을 속였다고 탄핵했는데, 조선 조정은 양호를 위해 변명했다. 훗날 이익(李瀷, 1681-1763)은 정응태가 옳았으며, 명나라 장수의 공은 평양 승첩의 이여송(李如松)이 첫째이고 양호는 금조평(金鳥坪) 전투에서 한 차례 성의 없이 싸웠을 뿐이거늘 조선에서 그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았다.[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 1599년(선조 32, 기해) 10월 상순 건립(사실상 각자)된 「장양상동정마애비(張良相東征磨崖碑)」는 「동정시비(東征詩碑)」라고도 한다. 독공정왜유격장군(督工征倭遊擊將軍) 장양상(張良相)이 정유재란 때 이여송(李如松)과 진린(陳璘)의 행적을 시로 기록한 것이다. 『금석집첩』 181靡 책에 탁본이 있다. 장양상은 정유재란이 끝난 뒤 1599년 5월에 수병 1,50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왔다가 10월에 귀로에 올라, 남해 선소(船所)에서 마애비를 제작했다. 한동안 황해도에 머물고 이듬해 여름 중국으로 귀환했다.[23] 「동정시비」의 본문은 장편 서문이 있고, 7언 6구와 7언 8구 등 두 시가 있다. 서문에서 장양상은 만세덕(萬世德)이 형개(邢玠)·진린(陳璘)과 협력하여 무공을 세웠다고 칭송했다. 명나라 군사는 낙랑(평양)을 거쳐 계림(경주)을 넘어 부산에서 군공을 세우고 큰 고래(왜군)를 봉쇄한 뒤에 돌아갔는데, 태사씨 구대상(區大相, 1549-1616)이 제왕의 군

(吳宗道)紀念碑」. 「姜王二詔使(姜曰廣·王夢尹)去思碑」.

22) 『星湖僿說』 제22권 經史門 5, 68 「壬辰天將」; 『星湖僿說類選』 卷9上 經史篇 論史門.

23) 朴現圭, 「명 張良相의 南海 〈東征磨崖碑〉 고찰」, 『동아인문학』 38, 동아인문학회, 2017, 143-165면.

사 파견에 대해서는 칭송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시(사) 2장을 지었다고 했다.[24] 부산의 「만세덕기공비(萬世德紀功碑)」(釜山子城碑銘)와 성격이 같다.[25]

『금석집첩』에는 유애비의 탁본 12점이 수록되어 있다.[26] 하지만 「팔마비(八馬碑)」 탁본은 수록하지 않았다. 편찬자들이 조선후기 4자 4구 고과조문(考課條文)을 새긴 비석의 탁본 수록하지 않은 것은 '영세불망'의 허위를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734년(영조 10) 건립의 「유철증별시비(兪橃贈別詩碑)」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 출토되었는데, 증별시를 새긴 망주석 비이다.[27] 『금석집첩』 100罪 책에 탁본이 들어 있다. 유철(1606-1671)이 연행하거나 효종 초 서변(徐忭) 옥사로 귀양 가게 되자 친우들이 지어준 8수의 시를 이재(李縡)

---

24) 「東征詩」. "萬曆二十六年季秋, 國家復有事于東夷. 維時朝鮮受倭患, 至是六七年矣. 我師救之, 久未報捷, 天子赫然震怒, 乃命中丞萬公往視師. 經理與總督大司馬刑公, 都督陳公以下, 文武將臣十餘人, 兵會於朝鮮, 先後濟鴨綠江, 數道並進. 惟公壯志鷹揚, 英風虎視, 暨于羣公, 罔不協乃心力, 竭厥忠謀. 將輳樂浪, 踰鷄林, 耀師於釜山, 封鯨鯢而後返. 太使氏區大相, 以爲從古帝王出師命將, 咸有誦言, 以壯軍容宣國威, 伸同仇之誼, 軫於役之勞. 矧夫以天王之師, 征誅夷狄, 芟除暴亂, 筭出萬全, 事出必克, 順治威嚴, 于茲爲盛, 宜宣昭示遠服, 永詔來禩. 於是作詩二章. 雖乏孔碩之雅, 庶揚有□□□云爾." 마지막 문장은 불명가 있다. "비록 위대한 아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디 드날리길" 운운의 뜻인 듯하다. 사(詞) 2장은 다음과 같다. "皇赫怒兮定夷亂, 壯士奮兮不遑宴. 橫長戟兮箙勁箭, 組甲耀兮星辰煥. 蹴溟渤兮波濤晏, 倚長劍兮扶桑岸." "四極奠兮鰲足斷, 皇靈震兮窮海外. 征不庭兮靜殊類, 甲旅悅兮從公邁. 封鯨鯢兮戢鱗介, 加日出兮極地界. 標穹碣兮際荒裔, 異域來兮嘉王會."

25) 「만세덕기공비」는 1599년 8월 상순 경리 만세덕이 대장군 이승훈(李承勛) 이하 문무 장리들을 거느리고 왜군을 바다 건너편으로 몰아내었다고 선전하여, 낭중 가유악(賈維鑰)에게 비문을 짓게 했다. 10월 1일 비문 초고가 접반사를 통해 조선 조정에 보고되자, 조선에서는 자성대((子城臺)[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에 비석을 세우게 했다. 1709년(숙종 35)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절단된 비석을 발견하고 이듬해 다시 세웠다.

26) 177罔: 「嶺伯李公(李翻)淸德善政碑」. 178談: 「評事(趙翼)救荒碑」. 「相國(金堉)恤民施惠碑」. 179彼: 「具橫城(具鎰)灌漑利民沒世不忘碑」. 181靡: 「三陟召公臺碑」. 182恃: 「泰仁申縣監(申潛)善政碑」. 「平壤李庶尹(李元孫)遺愛碑」. 「靈光慶郡守(慶暹)去思碑」. 「晉州趙牧使(趙錫胤)遺愛碑」. 「牙山趙縣監(趙爾翻(追慕碑)」. 184長(續): 「淸風府(金構)善政碑」. 「江西縣(金致一)善政碑」.

27) ①주천증별시(酒泉贈別詩): 호주(湖洲) 채유후(蔡裕後, 1599-1660)[이재(李縡) 서(書)]. ②동막언지시(東幕言志詩): 회국(晦谷) 조한영(曺漢英, 1608-1670)[신임(申銋) 서(書)]. ③연행증별시(燕行贈別詩): 시남(市南) 유계(兪棨)[권상하(權尙夏) 서(書)]. ④은대술회시(銀臺述懷詩):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김창흡(金昌翕) 서(書)]. ⑤영영증별시(嶺營贈別詩):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이건명(李健命) 서(書)]. ⑥모우내방시(冒雨來訪詩): 창주(滄洲) 김익희(金益熙, 1610-1656)[김진규(金鎭圭) 서(書)]. ⑦영영증별시(嶺營贈別詩):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 1607~1667)[오태주(吳泰周) 서(書)]. ⑧주천증별시(酒泉贈別詩):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조상우(趙相愚) 서(書)].

등 후인 8명이 베꼈는데, 그 글씨들을 모아 비에 새겼다.[28] 유철의 행장은 김창협(金昌協)이 작성하고 신도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작성했으며 묘지명은 남구만(南九萬)이 작성했다.[29] 『금석집첩』 100罪 책에 「兪大司憲碑」가 있으니, 곧 신도비이다.

4. 『금석집첩』·『금석속첩』 수록 탁본(탑본) 비지의 문체

고려와 조선시대 비지문에서는 묘지(墓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석집첩』에는 고작 7점이 들어 있다.[30] 지하에 묻혀 있는 많은 묘지들을 탁본하지 못한 것이다. 대개 묘표는 가계만 간단히 적고, 표석을 세운 일, 화성(火城, 묘역 담장) 쌓은 일만 기록했다. 1582년(선조 15) 이포(李褒, ?-1373)의 10대손 성주목사 이현배(李玄培)가 「시중이공포묘표(侍中李公褒墓表)」를 세운 예가 그것이다. 『金石集帖』 168良 책에 탁본[해서비제 '高麗侍中贈諡敬元公李褒之墓']이 있다. 이포는 이조년(李兆年)의 아들이자, 권신 이인복(李仁復)·이인임(李仁任)·이인민(李仁敏)의 부친이다. 이포의 아들 이인민(李仁敏, 1330-1393)이 1438년 3월에 선친을 이장하고 1444년에 또 이장했다는 음기가 있다.

비지문의 찬자는 묘주의 이름을 불후하게 할 수 있는 입언자(立言者)의 역할을 하면서 유묘(諛墓)의 비난을 듣지 않도록 긴장해야 했다. 특히 조선후기의 비문은 석비문이든 비지문이든 한 사건이나 한 인물의 칠분(七分) 이상을 그려내려고 다양한 수사법과 공교로운 구성을 취했다.[31] 비지문은 대개 다음 요소들을 요건으로 삼았다.

---

28) 『기계문헌(杞溪文獻)』에는 1671년 3월 7일 현종의 유제문(諭祭文)을 비롯하여, 이정기(李廷夔)·한붕익(韓鵬翼)의 제문이 있고, 이경석(李景奭) 등 26수의 만시(挽詩)가 있다. 심경호 역, 『기계문헌』 권5, 기계유씨종친회·부운장학회, 2014.

29) 金昌協, 「司憲府大司憲兪公行狀」, 『農巖集』 卷28; 宋時烈, 「大司憲兪公神道碑銘 幷序」, 『宋子大全』 卷168; 南九萬, 「大司憲兪公墓誌銘」, 『藥泉集』 卷15.

30) 004黃 「孝純賢嬪誌」, 127歸 「西原府院君韓公繼美貞敬夫人尹氏誌」. 155鞠 「安東金君(金昌肅)誌」. 166效 「貞惠翁主(宣祖女)誌」, 199羔 「左相奉朝賀李公(李台佐)誌」, 199羔 「右相鶴南鄭公(鄭羽良)誌」, 210建 「內資奉事崔公(崔世益)誌」 등.

31) 이를테면, 정조가 지은 채제공(蔡濟恭) 뇌문(誄文)을 새긴 비석을 「정조어제채제공뇌문비(正祖御製蔡濟恭誄文碑)」라고 부르는데, 정조 스스로 축단(逐段) 자평(自評)한 것이 있다.

① 비두(碑頭): 비제(碑題)과 찬서전자(撰書篆者) 이름
  ⅰ. 제명
  ⅱ. 찬자・서자(집자)・전액자(글 마지막 건립 일자 앞에 적기도 함)
② 허두(虛頭)
  ⅰ. 논평(論評) 주제 제시
  ⅱ. 묘갈명 제작 동기(졸기 앞, 명의 앞이나 명의 뒤에 밝히기도 함)
③ 전기(傳記)
  ⅰ. 성(姓), 휘(諱), 씨출(氏出) 즉 본관(자와 호를 함께 밝히기도 함)
  ⅱ. 선조(先祖)
  ⅲ. 증조고(曾祖考)・조고(祖考)・고(考). 비(妣). 비(妣)의 고(考)・비(妣)
  ⅳ. 고인의 출생, 성장, 품성
  ⅴ. 수학, 집안에서의 수양 및 스승으로부터 훈도 받은 연원
  ⅵ. 관력(官歷), 백성들에게 베푼 정치적 업적
  ⅶ.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생의 아름다운 풍문
  ⅷ. 찬술자가 특별히 기록하는 아름다운 풍문과 일화(후치시키기도 함)
  ⅸ. 졸장(卒葬). 고인의 몰년, 장례 일자, 국가의 은전 반사 여부, 장지
  ⅹ. 배위(配位). 전배, 후배, 첩 포함.
  ⅺ. 자성(子姓). 자제 및 손자를 포함하는 자손록
④ 추록(追錄)
  ⅰ. 성품과 학문을 드러내는 구체적 일화
  ⅱ. 평어(찬술자 평어 혹은 제삼자 평어 인증)
⑤ 명(銘)[병서(幷序) 류에 연계함. 없는 예도 있음]
⑥ 건립 연도와 건립자
⑦ 추기
  ⅰ. 건비 이후 자손록의 보충
  ⅱ. 추증, 추시 사실 등을 기록

비지문에서 비의 서(①-④)는 서사를 하고 명(⑤)은 송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나라 한유(韓愈)의 「유통군비(劉統軍碑)」나 조선 김조순(金祖淳)의 「오달제대낭장비(吳達濟帶囊藏碑)」의 예처럼 명에서 서사를 하는 방식도 있다. 명은 압운(押韻)의 시가가 대부분이지만 무운(無韻)의 산문도 많다. 또 글자 수나 양식을 보면, 삼언・사언・칠언의 제언(齊言)이 주류를 이루되, 초사체・잡언・변려・산문체 등도 있다.[32]

금석문은 인물의 행적이나 시문의 성취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우량(鄭羽良, 1692-1754)과 정휘량(鄭翬良, 1706-1762)은 조현명(趙顯命)의 배경으로 대신의 지위에 올랐으며, 또 대제학을 역임했다. 정치달(鄭致達)의 숙부로, 정치달의 처 화완옹주(和緩翁主)의 도움을 받고,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와 비밀히 통하여 무진(1748)·기사(1749) 연간에 분란을 일으켰다.[33] 정우량은 1745년(영조 21) 3월 경기도 연천 통현리에 건립된 김시환(金始煥, 1661-1739) 신도비에 전액을 썼다.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이 글을 짓고 조명교(曺命敎)가 썼다.[34] 정우량 형제가 작성한 비지문으로 다음 예들이 있다.

① 정수기(鄭壽期, 1664-1743) 묘갈: 1753년(영조 29)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 아들 정우량이 지(識)를 쓰고, 대자는 안진경(顔眞卿) 글씨를 집자, 소자는 소식(蘇軾) 글자를 집자했다.[35]
② 인성군묘(仁城君, 1588-1628, 선조 7번째 서자) 묘갈: 1751년(영조 27) 5월 경기도 의정부에 건립. 정우량이 비문을 짓고, 증손 이요(李橈)가 글씨를 썼으며, 현손 이익정(李益炡)이 전액(篆額)을 썼다.[36]
③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 묘표 「종실밀창군묘표(宗室密昌君墓表): 1749년(영조 25) 건립. 정우량이 1747년 비문을 짓고, 이직의 아들 이익정(李益炡)이 글씨를 썼다.[37]
④ 남제명(南悌明, 1685-1705) 묘갈: 1749년(영조 25) 8월 건립. 정우량이 미문을 짓고 임정(任珽)이 글씨를 썼다.[38]

---

32) 산문으로 명을 지은 예로는 韓愈의 「河東節度觀察使滎陽鄭公神道碑」, 歐陽脩의 「長安郡太君盧氏誌銘」, 王安石의 「太常博士曾公誌銘」 등을 꼽을 수 있다.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6.
33) 정우량은 글씨에 능하여 1740년(영조 16) 개성 계성사비문(啓聖祠碑文)을 작성하고 글씨도 썼다. 『金石集帖』 183己(續)(175金石續帖己:書根無) 책에 탁본이 있다. 정우량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썼으며, 임정(任珽)이 전액을 썼다. 1740년(영조 16) 6월에 비를 건립했다. 행서비제는 「啓聖祠碑銘幷序」이다.
34) 『金石集帖』 089推(교088推:正卿) 책에 탁본이 있다. 전액은 「行大宗師孝憲金公神道碑銘」이고, 해서비제는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行崇祿大夫禮曺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孝憲金公神道碑銘幷序」이다.
35) 『金石集帖』 199羔(교191羔:天將/詔使/鄕校/武正卿/文正卿/學亞卿/二相) 책에 탁본이 있다. 전액은 없고, 해서비제는 「朝鮮國贈領議政行崇政大夫判敦寧府事鄭公壽期之墓 贈貞敬夫人坡平尹氏祔左」이다.
36) 『金石集帖』 011盈 책. 전액은 「有明朝鮮國王子仁城君孝愍公墓碣銘」이다.
37) 『金石集帖』 200羊 책. 해서비제는 「朝鮮國顯祿大夫密昌君贈諡靖憲公諱樴之墓」이다.
38) 『金石集帖』 152常 책. 전액은 없고, 해서비제는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吏曺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

⑤ 정우량(鄭羽良) 묘지 「우상남학정공묘지(右相鶴南鄭公墓誌)」: 1754년(영조 30) 건립. 동생 정휘량(鄭翬良)이 비문을 짓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글씨를 썼다.[39]

연산군과 중종 초의 문인 강혼(姜渾, 1464-1519)이 찬술한 비지문을 통해서는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초를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강혼은 1498년(연산군 4) 7월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 장류되고 봉수의 역에 충당되었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문한을 담당하여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다. 1506년 가을, 반정에 가담하여 9월 2일 중종 즉위 후 좌찬성 이조판서 판중추부사가 되고 정국공신에 녹훈되었다. 이후 진천군의 봉호도 받았다. 문집 『목계일고』에는 9편의 구묘문(丘墓文) 이 있다. 1507년(중종 2) 2월 「황신묘갈(黃愼墓碣)」을 작성했는데,[40] 황신의 부인이 강석덕(姜碩德, 1395-1459) 딸이므로, 황신은 강혼에게 먼 친척에 해당한다. 묘갈은 가계, 벼슬 경력, 가족 사항, 생몰년을 적고, 초사체 명(銘)을 붙였다. 1513년(중종 8) 5월에는 유흥(柳泓)의 청으로 그의 아버지인 중중반정 일등 공신 유순정(柳順汀, 1459-1512)을 위해 신도비문을 작성했다.[41] 강혼은 유순정이 사륙문에 능하고 『주자강목』에 통달했다고 기록하고, 반정 무렵 조정의 귀인 가운데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전한 사람이 많았다고 덧붙였다.[42] 1517년(중종 12) 8월에는 동년 유응룡(柳應龍)의 청으로 유순(柳洵, 1441-1517)의 묘갈에 음기를 작성했다.[43] 유순은

都摠府副摠管南公墓碣銘幷序」이다. 정우량은 남제명의 아들 南泰良과 친구이다.

39) 『金石集帖』 199羔 책에 탁본이 있다. 八分碑題는 「議政府右議政贈諡文忠鶴南鄭公諱羽良墓」이다.

40) '戚孫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晉川君姜渾謹記'라고 밝혔다. 황신(黃愼/黃昚)의 조부는 황희(黃喜)이고, 부친은 황수신(黃守身)이다. 문음으로 벼슬을 시작해서,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1471년 가선의 품계에 올라 장원군(長原君)에 봉해졌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에 비가 있다.

41) 글씨는 송인(宋寅)이 썼다. 비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서 출토되었다. 『금석집첩』 049劒 책에 탁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菁川府院君 贈諡文定柳公神道碑銘幷序'이다.

42) 公平居喜慍不形, 口不言人過失. 長身有風儀, 持論公平. 純正出於自然. 務持大體, 不爲崖異. 遇國家大事, 不動聲色, 而處置咸得其宜. 博通經史, 爲詩文, 雄健豪逸, 尤長於四六. 好讀朱子綱目. 至於名臣賢士嘉言善行, 尋繹體認. 或書諸窓壁, 以自檃括. 晩節愈恭愈儉, 不事生産. 若有贏餘, 常賑施其親友, 豁如也. 心常不樂曰: '安得釋重負, 優游適意以盡吾餘日乎?' 常與平城昌山二公語曰: '我輩今雖成功, 事定之後, 凡可料理, 當一歸諸朝廷, 己無與也. 方擧義之日, 凡所指揮, 皆稟於公. 時朝貴名在除去中者, 頗多賴公全活者不少, 而人反不知, 或有怨公者, 公竟不自言, 人服其量洪.

43) 『금석집첩』 049劒 책에 탁본이 있다. 강혼의 문집에는 「領議政柳文僖公墓碑」로 되어 있다. 묘지명은 신용개(申用漑)가 작성했다. 姜渾, 「領議政柳文僖公墓碑」, 『木溪逸稿』 卷1 丘墓文; 申用漑, 「文城府院

연산군 때 권력자이되, 중종반정 후 정국공신의 호를 받고 부원군이 되었다.[44] 강혼은 유순의 행적을 송나라 왕단(王旦)과 비교하여, 왕단이 태평시대를 만났던 것에 비해 유순은 난세를 당해 공명을 이루었으므로 유순의 학문과 식견이 왕단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유순이 자학에 더욱 정통하여 편방과 점획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으며 의서와 지리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칭송했다.

정미수(鄭眉壽, 1456-1512) 신도비는 1513년(중종 8)에 정미수의 처 이씨[전의군 이덕량(李德良)의 딸]가 세웠다. 강혼이 찬술하고 김희수(金希壽)가 해서로 써서 새겼다.[45] 정미수의 아버지는 형조참판 정종(鄭悰), 어머니는 문종의 딸 경혜공주이다. 계유정난 후 부친이 사사되고 모친과 함께 서울로 소환되었다. 세조가 기르며 이름도 지어주었다. 잠저의 성종을 시중하다가 1473년(성종 4) 돈녕부직장·형조정랑을 지냈으나, 죄인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주 탄핵을 받았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상관으로 올라, 1504년 의정부참찬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했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정국공신 3등, 보국숭록대부에 올랐으며, 해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박경(朴耕) 옥사에 연루되어 울진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강혼은 신도비문에서 정미수의 사망과 장례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가계를 적었으며, 관력을 서술했다. 이때 정미수가 의친(議親) 문제로 상소한 내용, 형률을 완화시켜 적용한 일화를 특별히 기록했다.[46]

君柳公墓誌銘」, 『二樂亭集』 卷11 墓誌.

44) 유순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 있다. 묘갈의 비양에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文城府院君 贈諡文僖公柳洵墓 貞敬夫人張氏"라 새겼다.

45) 정미수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다. 비는'正德八年癸酉九月日妻貞敬夫人李氏立石'이라 밝혔다. 『金石集帖』 127歸 책에 탁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秉忠奮義請國功臣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右贊成領經筵事判義禁府事海平府院君贈諡昭平鄭公神道碑銘幷序」이다.

46) ⓐ (刑曹正郎)以公錯命, 鞫于禁府. 律官據律文八議條'爲皇家袒免以上親'之語, 不欲論公以議親. 將鎖公項, 其言曰: "律文稱皇家, 盖指當代, 先王不與也. 其稱袒免, 盖指同姓, 異姓不與也." 公在獄上疏, 其略曰: "律文稱皇家通指一代而言, 稱袒免指同姓無服之親. 其曰以上者, 兼指同異姓有服之親也. 律官徒知袒免爲同姓親, 而不知以上二字擧窮疏無服而該內外有服之親也. 若只言當代, 則律文何以通稱皇家? 其曰皇家□ (…) □明矣." 其議見精微, 論議通暢, 實關國體. 疏入, 命議于大臣, 皆曰: "某言當." 遂下禮曹爲定法. ⓑ 俄陞司憲府掌令. 時宗□ (…) □證, 皆□□□廷□之. 皆曰: "宜拷訊□□□大辟." 公獨曰: "某是太宗之孫, 八議所宜宥. 且其罪犯, 非關國家. 今宜除拷訊. 據證定罪, 使恩法得以竝行, 庶合事體." 上竟不問. 賜李氏死. ⓒ 時右承旨韓堰等對上問忤旨事, 下憲府畢推按律以啓. 公適在告聞之, 獨啓曰: "人君臨□必廣詢衆議, 所言是則從之. 如或不中, 亦不可罪. 今堰等雖失對, 請賜優容." 朝廷雖是公言

『금석집첩』은 석사(釋寺)의 분목을 두고 오래된 비석의 탁본을 8책이나 채록했다. 단, 217空 책의 6점과 218谷의 5점은 전존 여부를 알 수 없다. 탑비 가운데 고려시대 것으로는 「선각대사편광탑비(先覺大師遍光塔碑)」, 「진철대사보월탑비(眞澈大師寶月塔碑)」, 「낭공대사백월탑비(朗空大師白月塔碑)」, 「보석사보승탑비(普碩寺寶乘塔碑)」, 「원공국사승묘탑비(圓空國師勝妙塔碑)」, 「통진문수소재탑비(通津文殊所在塔碑)」 등이 있다. 또한 219傳 책에는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와 「송도현화사비(松都玄化寺碑)」가 있다.

「신행선사비」 즉 「단속사신행선사비문(斷俗寺神行禪師碑文)」은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문」[「大唐新羅國故鳳巖山寺教謚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幷序」]과 함께, 신라 선법의 계보를 밝혀주는 중요자료이다. 신행은 당으로 건너가서 북종선 신수(神秀, ?-706)의 제자 보적(普寂, 651-739)의 문인 지공(志空)에게서 법을 받았다.[47] 「신행선사비문」은 신행이 입적한 지 34년만인 헌덕왕 5년(813)에 찬술되었는데, 29행 각 행 63자, 총 1,820여 자에 그친다.[48] 전체는 서-명으로 되어 있고, 서문은 다섯 문단이다. 제1 문단은 수행의 공덕을 말하고 선법 전등의 수기를 받은 사람이 신행임을 명기하여 신행을 선법 전래자로서 부각시켰

而竟左. 授司贍寺僉正. 時議非之. ⓓ 甲寅成廟賓天, 承差董役於山陵, 褒陞堂上, 遞拜掌隷院判決事, 出爲忠淸道觀察使, 召拜刑曹參議. 時有人偸賣館藏書冊, 繫刑曹以贓滿當配. 朝啓訖. 公獨進□ : "□□□盜□□□錢糧者當大辟, 書冊乃興學之具, 偸賣者情亦有間, 置之極刑, 臣竊未安." 上從之, 命減死. ⓔ 甲子遷議政府參贊, 超授崇政, 兼判義禁府事. 時殺戮無厭, 大小惴惴. 公監詔獄, 臨鞫, 必□□士□ (…) □□□□者有之. 其餘全活亦多.

47) 근세에, 신수-보적-지공-신행으로 이어지는 북종선계보와 도신-법랑-신행-준범-혜은-도헌으로 전승되는 동산법문 계통이라는 두 법계를 신행의 스승이 신라인 법랑이었다는 사실을 매개로 하여 결합하는 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랑이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道信, 580-651)에게서 선법을 배워 돌아왔다는 기록이 「신행선사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당에 유학하여 4조 도신의 선법을 전수해 왔다는 사실은 893년 무렵 찬술의 「지증대사비문」에 비로소 나타난다. 최병헌, 「선종 초기 전래설의 재검토—〈단속사신행선사비문(斷俗寺神行禪師碑文)〉의 분석—」, 『불교학연구』 41, 불교학연구회, 2014, 111-141면.

48) 「신행선사비문」에서는 신행이 입적한 뒤 삼기(三紀), 즉 36년이 지나서 비가 수립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로 건립된 때는 34년 만인 헌덕왕 5년(813) 9월 9일이다. 신행의 사법제자인 삼륜선사(三輪禪師)가 주도했다. 당시 신행의 시호(諡號)나 탑호(塔號)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석의 원제목은 「해동고신행선사지비병서(海東故神行禪師之碑幷序)」로만 일컬어졌다. 찬술자는 원성왕의 손자이자 희강왕의 아버지로 807년 정월부터 810년 정월까지 집사부 시중을 엮임한 김헌정(金獻貞), 서자와 각자는 동계사문(東溪沙門) 영업(靈業)이다. 단속사에 세워졌던 비석은 조선시대 후기에 망실되었으나, 탁본이 여러 본 전한다.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의하면 높이 5척 6촌, 폭 2척 5촌이었다고 한다. 『全唐文』 卷0718에 전재되어 있는데, 몇몇 글자는 판독되어 있지 않다.

다. 제2 문단은 출생과 수계 사실을 기록했고, 제3 문단은 신행의 당 유학과 북종선의 전수 사실을 서술했으며, 제4 문단은 신행이 귀국하여 76세 때인 대력 14년(혜공왕 15년, 779) 10월 21일 남악(지리산) 단속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37년 동안 전법 교화한 사실을 편년, 서술했다. 신행은 '간심(看心)'과 '방편다문(方便多聞)'을 교시내용으로 삼아, 지공으로부터 전수받은 북종선의 좌선간심(坐禪看心)과 「대승무생방편문(大乘無生方便門)」을 홍포한 듯하다. 제5 문단은 신행의 입적과 신이한 현상, 삼륜(三輪)에 의한 현창과 비석 수립 경위, 그리고 비문 찬술자의 심정을 서술했다. 문체 면에서는 기존의 불교문헌 한문을 정돈하고 변문 투식을 중간에 사용했다. 이것은 최치원이 변문-고문 착종 문체를 실험한 것과 유사하다. 그 가운데 제5 문단은 완전한 변문이다.[49] 사(詞)는 4전운으로, 각 단락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특이하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여성묘주의 묘지를 작성하여 땅에 묻는 관습이 형성되었다. 『금석집첩』 161女 책과 215表 책에는 여성 묘주의 묘표 탁본이 여럿 들어 있다. 비빈의 경우는 조선 초에 이미 묘비가 건립되었다. 즉. 세종의 후궁 신빈(愼嬪) 김씨의 묘비가 1465년(세조 11) 5월 20일 남양주 은성리(銀城里)에 건립되었다. 이때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찬술한 글을 안혜(安惠)가

---

49) 是日也, 圓穹黯黲, 三光為之晦冥; 方祇振動, 萬物因茲零落. 甘泉忽竭, 魚龍驚躍其中; 直木先摧, 猿鳥悲鳴其下. 於時素縞飮化, 遐邇同聲. 或聞異香, 飛錫空而電奔; 或觀瑞雲, 乘杯流而雨驟. 泣血焚身, 盡心葬骨, 殆三紀矣. 其處則懸崖萬丈, 流水千尋, 逃名洗耳之隱居, 拋世遁跡之幽棲. 定沼泓澄, 深藏慧日之光; 空林蕭索, 長引禪風之響. 北倚獨立之高岡, 西鄰三藏之迴轂. 掛煙月於山頭, 捐金玉於淵底. 豈惟地理之崔崒? 複乃靈神之洞窟也. 記云: 雞足石室, 摩訶迦葉守法衣, 待慈氏, 豈非是歟? 世世稱岩, 今見在茲. 成蹤自爾, 其狀如門. 門辟之期, 未知幾許. 如是聖跡, 其數孔多, 難可詳悉耳. 今我三輪禪師者, 宿殖眾妙, 本有三身, 心無自性, 悟不由他, 同修道業, 互作師資. 於時安禪餘暇, 熟慮寰中. 謂言無形之理, 不建像而莫睹; 離言之法, 非著文以靡傳. 悲夫慈父懷玉而歸, 窮子得寶幾日. 是以招名匠, 畫神影, 造浮圖, 存舍利, 燒戒香, 灑定水. 致懇惻於先聖, 將龜鏡於季葉焉. 有若大隱明朝之賢, 棲心道境之士, 策念韋提之貴, 亞跡圓寂之徒, 相顧誓言. 我等數人, 共承沙佛, 齊念塵僧. 由是稟紫氣於桂莞, 挺玉葉於金枝. 分鸞鑣, 驅鳳駕. 休沐清河之上, 泛舟楫於巨川; 蹈舞黃屋之下, 作棟梁乎大廈. 世上可觀, 於斯為盛. 盛必有衰, 古人所傳. 哀哉人世! 生也獨自以來, 死亦共誰而去. 爾未知過隙, 俯仰無有是非. 若欲出火宅而登露地, 截三有以歸一如者, 教網多端, 不如三覺; 助道非一, 隨喜為最. 故命忠直之吏, 勸潔淨之僧, 將茲有限之財, 造彼無窮之福. 於是取石名山, 伐木幽穀. 刊翠炎, 構紺宇. 庶幾標萬古之景跡, 曆千秋而不雕. 所謂人能宏道, 豈虛言哉! 善逝遺法, 付囑國家, 良有以也. 仆以狂簡無材, 忸怩有愧, 欲讚元化, 輒錄短懷. 未淨一心之地, 詎升三學之堂. 冀將螢火之熠, 竊助明景之暉. 前識早計, 焉可以擺指求月, 剖卵責晨也哉? 惟願天池有涸, 願海無涯, 水旱燋浸, 碑銘固存. 然後茫茫有識, 蠢蠢含靈, 灌法水於神器, 長道牙於心田, 永出愛欲之泥, 齊登涅盤之岸雲爾.

글씨 쓰고 전액을 올렸다.[50] 신빈 김씨의 장남 계양군 이증(李璔, ?-1464)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도왔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삼남 이침(李琛, 1430-1479)은 잠저의 세조와 우애가 돈독했다. 1464년(세조 10) 9월 4일 신빈 김씨가 졸하자, 세조는 쌀·콩 모두 70석을 부의로 내려 주었다. 김수온이 지은 묘비는 신빈 김씨의 가계와 출생, 졸, 장, 자손록을 모두 갖추었고, 신빈 김씨가 13세에 후궁으로 들어가 세종의 은총을 입어 소용(昭容), 숙의(淑儀), 소의(昭儀), 귀인(貴人), 신빈으로 책봉된 사실, 세종이 승하한 후 축발하고 자수궁(慈壽宮)에 거처하다가 1464년 9월 4일 정실에서 임종한 사실, 12월 6일 예장한 사실을 상세히 서술하고, 4언 26구 각구압운 6개운의 명을 첨부했다.

신빈 김씨 이후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熙嬪洪氏, 1494-1581)의 비지문이 1582년 9월 송인(宋寅, 1517-1584)에 의해 작성되었다. 『금석집첩』에 묘표로 되어 있으나, 송인의 문집에 묘지명으로 명기되어 있다.[51] 희빈 홍씨는 중종반정 때 정국공신(靖國功臣) 홍경주(洪景舟)의 딸로, 중종의 총애를 배경으로 조광조 등 사림파 제거에 앞장섰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1670-1718)의 능에는 1725년(영조 원년) 「숙빈최씨신도비(淑嬪崔氏神道碑)」가 세워졌다. 박필성(朴弼成, 1652-1747)이 비문을 지었고, 이방(李枋)이 글씨를 썼으며, 이요(李橈)가 전액을 했다.[52] 숙빈 최씨는 1676년(숙종 2) 입궁하여 1693년(숙종 19) 숙원이 되고, 1694년 뒷날의 영조를 낳고 숙의로 승진했다가 1695년 귀인으로 승품했으며, 4년 뒤 1699년(숙종 25) 숙빈이 되었다. 1718년 병이 위

50) 『금석집첩』 215表 책에 탁본이 있다. 전액은 「愼嬪金氏墓碑」이고 해서비제는 「愼嬪金氏墓碑銘」이다. "工曹判書金守溫撰, 攝護軍安惠書幷篆. 有明成化元年乙酉(世祖十一年: 1465)五月二十日立"이다.

51) 『金石集帖』 215表 책에 탁본이 있다. 해서비제는 「熙嬪洪氏之墓」이다. 宋寅, 「熙嬪洪氏墓誌銘」, 『頤庵遺稿』 卷3 文集1 墓誌銘.

52) 비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다.『금석집첩』 187可 책에 「有明朝鮮國淑嬪崔氏神道碑銘幷序」의 탁본이 있다. 즉, '昭寧園舊碑'로, 篆額은 「淑嬪崔氏神道碑銘」이다. "綏祿大夫錦平尉兼五衛都摠府摠管臣朴弼成奉敎譔, 顯祿大夫礪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枋奉敎書, 綏德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橈奉敎篆"이다. "皇明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영조 원년, 1725) 月 日建"이다. 또 1920년대 제작된 탁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和敬의 봉호를 받은 뒤에 작성한 新表도 『金石集帖』 187可 책에 탁본이 있다. "皇明崇禎戊辰紀元後百二十六年卽阼二十九年癸酉六月戊戌日上謚封園嗚呼是年卽私親封爵回甲也前後面皆飮泣自寫"라고 했다.

독해서 장동(壯洞) 사가에서 요양하던 중 3월에 사망하여, 5월 12일 경기도 양주에 묻혔다. 숙빈 사후 8년 되는 해 영조가 즉위하여 순화방(順化坊) 최씨 사당을 지어 숙빈묘라 하고, 박필성에게 비문 찬술을 명한 것이다. 1744년(영조 20) 숙빈 최씨의 묘호를 육상(毓祥), 묘호를 소녕(昭寧)으로 격상시켰다. 숙빈은 화경(和敬)의 시호를 받고, 여러 차례 존호가 더하여 휘덕안순수복(徽德安純綏福)이라 했다. 신도비문의 핵심어는 '근신지심(謹愼之心)'이다. 박필성은 숙빈 최씨 행록을 기초로 숙빈의 자질, 성품을 말하고, 숙빈치 인현왕후, 혜순대비, 자경대비로부터 대우 받은 사실을 강조했으며, 영조가 숙빈의 사가로 이현궁(梨峴宮)을 지정했다가 뒤에 내사로 예속시켰다고 밝혔다. 숙빈 최씨의 인물평 부분은 변문의 구법을 차용했다. 염률은 지키지 않았으나 대우와 배비구가 많아, 그 앞부분이 고문 문체인 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竊伏念, 嬪柔嘉其性, 淑愼其儀.
敦重靚穆, 溫恭和順.
承寧考恩遇, 垂三十戴, 而勤儉自持, 卑巽以牧. 罔敢以榮貴, 少移所守,
肆惟壺闈之間, 德意之融洽, 誠信之篤至, 於休無間,
可以輝暎彤管, 儷美徃牒, 則其迓迎天休, 篤生聖人,
承列聖艱大之投, 綿宗祊千億之祚者, 其必有由然矣.[53]
性(去敬) 儀(平支)
穆(入屋) 順(去震)
遇(去遇) 戴(去隊) 持(平支) 牧(入屋) 貴(去未) 守(去宥)
間(平刪) 洽(入洽) 至(去寘) 間(平刪)
管(上旱) 牒(入葉) 休(平尤) 人(平眞)
投(平尤) 祚(去遇) 然(平先)

53)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빈께서는 성품이 부드럽고 훌륭하시며, 몸가짐은 현숙하고 삼가셨다. 진중하고 화목하시며 온공(溫恭)하고 화순하셨다. 영고(寧考)[숙종]의 은혜로운 우대를 받은 지 30년이 되가는 동안에 근검으로 스스로를 지키시고 낮추고 겸손하심으로 덕을 기르셔서, 감히 영예롭고 귀해졌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을 조금도 바꾸려 하시지 않았다. 이에 궁중 안에 있으며 덕의(德意)가 무르익어 흡족하며, 신뢰가 독실하며 지극해서 아아, 아무 틈새가 없었다. 그 행적은 동관(彤管)으로 기록하는 궁중여성사에 휘황하고, 지난날 첩지에 환하게 빛날 수 있었다. 하늘의 휴징(休徵)을 맞이하여, 성인을 돈독히 낳으시어, 열성이 나라를 여신 지극히 어려운 투기(投企)를 이으시고, 종팽(宗祊)의 천년억 년에 이르는 국조(國祚)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어 그러할 것이다."

명은 4언 20구이다. 4구 1전운이니, 5개의 운을 바꾸어 썼다.[54]

한편, 고려 때 '광정대부정당문학 보문각대학사동수국사(匡靖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로 치사한 김훤(金晅, 1258-1305)은 자찬(自撰) 묘지를 남겼다. '대덕 9년 을사 2월 30일(大德九年乙巳二月三十日)'의 일자와 '도첨의찬성사 김훤 자찬묘지(都簽議贊成事金晅自撰墓誌)'라는 제액(題額)을 지닌 묘지명이다. 지음(誌陰)에는 김훤의 사후, 이진(李瑱, 1244-1321)이 찬술한 묘주 김훤의 생평을 새겨두었는데, 문생 급제 고문계(高門啓)가 쓴 것을 전본(鐫本)으로 삼았다. 그 후 고려 유민 조운흘(趙云仡, 1332-1404)의 「자명(自銘)」이 있고, 자찬 비지의 전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금석집첩』은 자찬 비지 가운데 다음 비문들의 탁본을 수록했다. 각 비문의 특성과 내용은 필자의 기왕 저술에서 언급한 바 있다.[55]

025閏: 「退溪先生墓碣銘」[李滉] 退溪自銘.
052闕: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盧公之墓貞敬夫人廣陵李氏祔」[盧守愼] 暗室先生自銘.
063芥: 「領議政陶谷李公墓表」[李宜顯]
090位: 「元判書景夏墓表」[元景夏] 居士自表.
094虞: 副提學蒼石李公埈墓表[李埈]
109垂: 「工曺參議尹公民獻碣」[尹民獻] 右錄乃泰昌庚申年間王考自銘者也.
孫尹趾完附識, 孫尹趾仁書.

『금석집첩』에 수록된 다음 자찬 비지 탁본은 새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052闕(교052闕: 相臣八)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致仕沈公墓碣」[沈守慶] 沈守慶自撰 萬曆二十九年辛丑(宣祖三十四年: 1601) 五月日立 男沈日就追記 [전액]右議政致仕沈公墓碣 [금석록]右相沈公守慶碣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은 본관이 풍산[경북 안동]으로, 기묘사화의 중심

54) 명(銘)은 이러하다. "天鍾異姿, 旣淑且靈. 塞淵其德, 緊自稱甥. 夙被睿眷, 承以巽順, 誠心內藴, 孚洽宮壺. 乃膺禎瑕, 誕我聖躬. 卜叶大橫, 天佑吾東. 丕承丕顯, 祚命靈長. 善慶之徵, 厥理式章. 彼崇岡, 有碑斯豐. 稽首綴銘, 用詔無窮."
55) 심경호, 『내면기행: 옛 사람이 스스로 쓴 58편의 묘비명 읽기』, 민음사, 2018.

인물 심정(沈貞)의 손자이다. 1598년(선조 31) 4월 여든의 나이에 영중추부사로 치사하고 금천으로 물러나 이듬해 생을 마쳤다. 양천현 서면 개화리(開花里)[서울 강서구 방화동] 선영 곁에 묻혔으며, 1601년(선조 34) 비가 건립되었다.[56] 심수경은 벼슬을 그만둔 직후 자표를 지어, 가계와 과환(科宦), 장졸(葬卒), 배위를 간략히 적었고, 뒤에 자손록이 부기되었다. 운문의 명(銘)은 붙이지 않았다.[57] 심수경은 선조의 조모 안빈의 사당을 사촌형 흥녕군의 곳에서 생부 덕흥대원군의 묘정으로 옮기도록 건의한 장본인으로, 이 때문에 율곡 이이의 탄핵을 받았으나, 자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들 심일취(沈日就)는 부친이 지은 자표의 뒤에 몇 글자를 추기했다. 즉, 부친이 평소 과미(誇美)를 좋아하지 않아 스스로 비갈의 초를 잡았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견사(遣辭)가 엄정하여 한 글자도 더하지 못하고, 또 명(銘)을 남에게서 구해 사적을 찬양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부친의 충효와 청백, 문장과 덕업은 치사교서(致仕敎書)에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환력을 기술한 부분은 편년체를 취하지 않고 한 관서 내의 직장(職掌)들을 병기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다. 당시의 상황이나 내면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금석집첩』의 탁본 수록 상황을 살필 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학문의 계보와 관련한 시각이다. 비록 주도적 탁본 수집 주체였던 김재로(金在魯, 1682-1759)가 정치적 발차취가 도드라진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는 노론의 학맥을 이은 인물이다. 따라서 노론 학자들에 대한 예우의 뜻을 탁본 정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 『금석집첩』의 편찬자들은 노소 분당 이전의 서인 학자들을 대우하고, 서인과 대척적이었던 동인의 일부 학자도 예우했다. 『금석록』과 『금석집첩』·『속첩』을 대조하여 '선현(先賢) 학문(學問)' 인물의 비탁 수집 현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56) 대리석 月頭形의 碑座 圓首 墓碣 前面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致仕沈公之墓 貞敬夫人申氏之墓'라 쓰여 있다. 후면에는 '右議政致仕沈公墓碣'이라는 篆額이 있다. 『금석집첩』 수록 탁본의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致仕沈公墓碣」이다.

57) 심수경의 저술로는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 1책 필사본(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 한국문집총간36)이 있다. 자찬 묘지는 들어 있지 않다.

023冬(先賢): 安珦碑. 鄭夢周碑. 趙光祖碑. 朴紹碑. 徐敬德碑. 趙昱碣.
024藏(先賢/學問): 禹倬表. 吉再表(無陰). 吉再)砥柱碑陰. 朴弘信夫人(閔尹暐女)表. 金叔滋表. 金叔滋配表. 金宗直表. 金宗直加贈復諡後碑. 金安國碑. 金正國表. 朴英表(無陰). 申季誠表. 申季誠閭表碑. 朴雲表(無陰). 洪仁祐表. 閔純碣.
025閏(先賢): 金宏弼碑. 鄭汝昌碑. 李滉碣. 李珥碑. 成渾碑. 張顯光表. 張顯光碑.
026餘(學問/文臣): 朴漢柱閭表, 朴漢柱閭碑. 曹偉表. 朴薰碑. 朴薰舊碣. 權橃碑. 宋麟壽表(無陰). 周世鵬碑
027成(先賢碑碣/書院碑): 李彦迪碑. 李恒表. 李恒碣(無篆). 黃山書院碑. 忠賢書院事蹟碑. 忠賢書院追配事實碑.
028歲(先賢/學逸): 曺植表. 曺植碑. 李希顔表. 成悌元表. 鄭之雲碣. 宋翼弼表. 徐起碣(無篆). 李義健碣. 權克中表(無陰). 權克中碣(無篆).
029律(先賢/學問): 趙憲表. 趙憲碑. 鄭逑碑. 曹好益碑. 朴嗣宗碣.
030呂(先賢): 金長生碑. 金長生表. 金集表. 金集碑. 宋時烈表. 宋浚吉表. 朴世采表(無陰).
031調(學問): 金就成表. 金就文表(無陰). 姜翼表. 朴光前碣. 權宇表. 南致利表. 金沔表. 鄭惟明碑. 朴惺碣. 李介立碣.
032陽(學問/文臣): 孔瑞麟表(無陰). 金麟厚碑. 辛應時碑. 鄭經世表. 鄭經世碑.
033雲(學問/文臣/林林公/愼樂公): 朴承任表. 朴承任碣(無篆). 奇大升表. 高應陟表. 具鳳齡表(無陰). 許曄碑. 金誠一墓傍石記. 鄭蘊表. 權得己表(無陰). 權得己碣. 愼權碣. 林眞怠碑.
034騰(學外): 趙穆表. 李德弘表. 徐行遠表(無陰). 徐行遠碣. 李屹表. 洪可臣碑. 姜鶴年表. 權諰表. 權諰碑陰. 尹宣擧表.
035致(學問/文臣): 尹倬碑. 申應榘碣. 鄭曄碑. 俞棨表. 金昌協表(無前). 李喜朝表.
036雨(學問): 尹祥碑. 崔得之表. 崔德之表. 金覺表. 房漢傑表. 房漢傑碣. 房應賢表(無陰). 房應賢碣. 成灌碣. 金東準表. 具致用碣. 具致用表. 趙聖期表. 崔徽之表.
037露(金石續帖露:無) : 御筆御製尤庵(宋時烈)表. 李義吉碣.

이 목록만으로도 『금석집첩』·『속첩』의 탁본 수집이 송시열·송준길·김창협·이희조·조성기 등 학맥을 중심에 두었고, 허목·윤휴 계열을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임영(林泳, 1649-1696)은 숙종 때 지제교(知製敎)로 관각문을 작성하고 김창협·조성기와 교유하며 학문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뒷날 소론으로 갈린 인물이다. 『금석집첩』의 편찬자들은 임영의 묘도문자 탁본은 수록할 의도가 없었던 듯하다.[58]

58) 다른 예들에 비추어 『금석집첩』의 편자들이 묘표 탁본만이라도 수록할 수 있었을 듯하지만

'선현 학문'의 비문은 대개 장중한 고문의 병서와 명(銘)으로 조직되어 있다. 『금석속첩』 037露 책에 이의길(李義吉, 1596-1633)의 비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의길은 박지계(朴知誡)의 문인이다. 비갈은 박세채(朴世采)가 1691년(숙종 17) 5월 2일 찬술했고, 비제는 「경릉참봉이공묘갈명(敬陵參奉李公墓碣銘)」이다. 묘갈명 서두에서 박세채는, 사대부라면 당비(黨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의길이야말로 천리인심지공(天理人心之公)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도도한 논조로 서술했다.[59] 묘도문자를 작성하면서 비주(묘주)의 행적을 편년체로 적는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의론을 개입시켜 찬술자의 이념을 선창한 대표적인 글이다. 이의길은 1624년(인조 2) 경릉참봉으로서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자고 상소했으나, 승정원에서 상소를 봉입(捧入)하지 않았고, 이이길은 결국 낙향했다. 박세채는 이 사실도 특별히 기록하되, 이의길이 젊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유문(遺文)에서 자득하여 '명리존현(明理尊賢)'을 행한 사실을 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영의 비문은 이정영(李正英)의 셋째 사위로 소론의 중심인물이었던 윤지인(尹趾仁)이 1722년(경종 2) 이전에 지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입각(入刻)되지 않았다. 이후 1722년부터 1744년 사이에 이덕수(李德壽)가 「창계임선생신도비명(滄溪林先生神道碑銘)」을 지어, 그 문집 『서당사재(西堂私載)』에 수록되어 있다. 또 임영의 『창계집』 '부록초'에 '資憲大夫 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右賓客 李德壽 撰'으로 모두 2781자의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滄溪林生神道碑銘 幷序」가 있다. 하지만 신도비는 곧바로 수립(竪立)되지 못했고, 1792년에는 석물쟁송(石物爭訟)까지 발생했다. 근년에 김응현(金膺顯) 서병전(書幷篆)을 입비(入碑)하여 수립(竪立)했는데, 경신 환국 이후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평가어는 이덕수 원문과 달리 수정하여 실었다. 심경호, 「滄溪의 시문과 학술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Ⅱ』,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2023.7.29.

59) 朴世采, 「敬陵參奉李公墓碣銘」(辛未五月二日),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74 墓碣銘. "國家自宣廟朝, 士大夫黨比相傾殆五十年, 所臧否與奪, 不啻如水火. 雖於鉅儒名賢, 一皆倒置而亂說, 識者病之, 亦莫有能正是非爲一世定論者, 其禍至今未已. 惟故敬陵參奉咸平李公不然. 蓋其天性明睿, 少已委己聖學, 讀書論世, 其爲賢否立見, 非假之他術也. 初栗谷先生李文成公珥, 牛溪先生成文簡公渾, 同德彙征, 間被異己者所慝. 後因大獄, 齮齕文簡公益甚, 至追論褫爵, 儒林爲之氣塞. 顧公王考咸豐公, 時在新進臺閣中, 遂不免與議, 則其交游見聞又可知爾. 比公上學, 日侍咸豐公側, 咸豐公亟愛重之, 所言無不從. 公一日借閱二先生遺文, 輒問曰: '孟子嘗言誦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今栗牛二先生書具在, 其言行出處, 動合前哲, 非可厚誣, 恐與祖父平昔之論不同.' 咸豐公心頗異之, 不爲動. 公遂精白開陳其故, 久而不解. 咸豐公後乃渙然悔悟, 一用公言, 搢紳傳爲美事. 自是宗族知舊, 亦無有異趨者. 先是潛冶朴先生知誡, 亦從其父兄, 時不協於二先生. 逮潛冶齟齬, 自知力學, 必以二先生爲師法, 恨不及其門. 君子謂二事固可相埒, 而公所就爲尤難焉, 信矣. 蓋觀世之號慕二先生者, 非私則隨, 其攻之者亦然. 乃公以一介後生, 自得於遺文, 明理尊賢, 以作其是非定論, 使天下後世深知天理人心之公, 終不爲一時黨比之私所掩, 其功大矣. 嗚呼賢哉!"

각시켰다. 이러한 기서(記敍)는 노론 학맥의 인사들이 두 선생을 추존하는 일이 '사(私)'도 아니고 '수(隨)'도 아니며 '공(公)'의 행위라는 점을 선언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5. 결어

한국의 석비와 비지는 문체의 미학을 강구하면서 사건의 핵심적 기록과 망자 삶의 공의적 평결을 정치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비문의 찬술자는 의뢰자 집단의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설득력 있는 기서 문체를 구사해서 비문의 내용을 정돈하고 편장 체제를 구축했다. 고려 중엽까지는 서(序)에 변문의 문체나 변문-산문 혼용 문체를 활용하고 명(銘)은 환운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변문-산문의 문체는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사용되었는데, 불교 비석 이외의 비석에서는 변문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또한 석비문이나 비지문에서는 대부분 명을 작성했고, 작성할 경우에는 구법과 압운을 다양하게 운용했다. 즉, 비의 사(詞)·명(銘)은 장편의 경우 4구 1전운이 많지만, 불규칙한 환운, 일운도저(一韻到底)의 예도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병서의 서 부분을 주로 고문으로 지으면서 기록성에 중점을 두고 사(詞)·명(銘)은 다양한 구조를 채용했다. 이두어나 한국한자어를 사용하는 한국식 한문의 문체는 조선후기까지 일부 석비에 채택했지만, 정격의 구조를 지닌 비명(碑銘)의 서에는 이두식(한국식) 한문이나 한글을 사용한 예가 없다.

한편, 『금석집첩』 탁본의 분포 상황을 살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학문 계보와 관련한 취사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금석집첩』 37露 책의 「경릉참봉이공묘갈명(敬陵參奉李公墓碣銘)」 탁본은 박세채(朴世采) 찬술의 묘갈명인데, 서의 서두에서 묘주(비주) 이의길이 이이·성혼의 유문(遺文)에서 자득하여 '명리존현(明理尊賢)'한 사실을 부각시켜 당비(黨比)에 휩쓸리지 않는 인물 전형을 그려보였다. 이 사실을 보면, 비문 문체 분석에서는 자료의 초촬과 특정 이념의 제시 등에서 작성자의 의도를 직간접으로 개입시키는 편장 구조,

특정한 이념을 은현(隱現)시키는 방식, 포폄(褒貶)의 미언(微言)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각 시기마다 독자적인 미학을 발전시켰다. 본고는 근세 이전의 석비문과 비지문의 문체를 제1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문체의 제2 기준에 따라 한국 비문의 문체사를 더욱 면밀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金石錄』 필사본 1책, 고려대 도서관 한적실 소장.
『金石集帖』 27책, 고려대 도서관 한적실 소장.
『金石集帖』 1책(得字冊), 서울대 규장각 소장
『金石集帖』·『金石續帖』 217책,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동국대불전간행위원회내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 『한국불교전서』 1-13, 동국대 출판부, 1979-200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금석문조사총람집』 Ⅰ-Ⅲ, 조계종출판사, 2013.
임세권·이우태 편, 『한국금석문집성』 1~34,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2002-2013.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韓國東國大 出版部, 2018.
남양주문화원, 『南陽州金石文大觀』, 남양주시, 1998.

國史編纂委員會 편, 「朝鮮王朝實錄」, 探求堂, 1981 영인.
盧思愼·徐居正 등 편, 『(影印標點)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99; 『국역 동문선』, 고전국역총서 31, 민족문화추진회, 1968-1970; 민족문화추진회, 1998.5. 증판 1쇄.
兪致雄 편, 『杞溪文獻』, 杞溪俞氏宗親會·富雲獎學會, 1963; 심경호 역, 『杞溪文獻』, 기계유씨 종친회·부운장학회, 2014.

2. 논저

具資訓·韓珉燮,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研究』 21, 韓國實學研究會, 2011.
金龍善, 『고려 금석문 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2004.
김기종, 「고려시대 불교금석문의 변체한문과 그 성격」, 『불교학보』 6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3.
김문기, 「최치원의 四山碑銘 연구—실태조사와 내용 및 문체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15, 퇴계학연구원, 1987.
김문식,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와 태조 이성계의 행적」,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영민, 「『金石集帖』의 여성 묘주 탁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철상,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輯 연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朴現圭, 「명 張良相의 南海 〈東征磨崖碑〉 고찰」, 『동아인문학』 38, 동아인문학회, 2017.
박현규, 「明將 吳惟忠의 충주 〈吳總兵淸勳碑〉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8,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7.
심경호, 「목계 강혼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 시론」, 『남명학연구』 51,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16; 심경호 외 6명, 『진양강씨 공목공파의 인물과 학문』, 진주: 술이, 2017.
_____, 『내면기행: 옛 사람이 스스로 쓴 58편의 묘비명 읽기』, 민음사, 2018.
_____,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_____,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_____, 『한국 석비문과 비지문 연구』, 일조각, 2020.
_____, 「『금석집첩』과 『금석속집』의 성립에 관한 탐색: 김재로 본종·방친 비탁과 청풍김씨 문인 찬술 비탁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_____, 「滄溪의 시문과 학술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Ⅱ』,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2023.7.29.
_____, 「이차돈순교비 비문 해독과 문체에 대하여」, 2023년 국립문화제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이차돈순교비: 그 가치와 비면에 대한 새로운 탐구』,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 주최,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강당, 2023.8.11.
심규식, 『광해군시대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23.2
유지복, 「『金石集帖』 碑文의 隸書 연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임완혁, 「碑誌文에 나타난 亡人의 形象化 方式: 碑誌文을 둘러싼 人間의 相互關係를 통해 본」,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정병삼, 「高麗 高僧 碑文 譯註의 과제와 방향」, 박종기 외, 『고려시대연구』 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_____,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정우봉,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최병헌, 「海印寺 妙吉祥塔記」, 김철준·최병헌 편,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古代篇), 일지사, 1986.
_____, 「선종 초기전래설의 재검토一〈단속사신행선사비문(斷俗寺神行禪師碑文)〉의 분석一」, 『불교학연구』 41, 불교학연구회, 2014.
하일식, 「해인사전권과 묘길상탑기」,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황의열, 「碑誌類의 특징과 변천 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姜書閣, 『駢文史論』, 人民文學出版社, 1986.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6.

3. 인터넷 사이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s://riks.korea.ac.kr/kostm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지식e음, 한국의 금석문(https://portal.nrich.go.kr/kor/ksmUsrList.do?menuIdx=58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Abstract】

The Literary Style of Steles and Epigraphs : Focusing on *Kŭmsŏkchipch'ŏp* and *Kŭmsŏkchipch'ŏp*

Sim Kyung-Ho*

Although steles and epigraphs of Korea were influenced by China, they had developed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 historical process. The majority of the epigraphs in 7th century Korea used Korean (Idu script) style literary Sinitic or parallel prose style. In the late 9th century, composing epigraphs in parallel prose style became the convention, however, from the mid Koryŏ period, classical prose style became the mainstream. In addition, the early Korean epigraphs did not adopt the rhyming system, but it gradually utilized sophisticated rhyming system. Funeral epigraphs for literati were developed since the late Koryŏ period, and the form of combining a preface in prose and an inscription in verse was settled in. Steles and epigraphs of Korea had evolved into the genre that pursues esthetics of literary style, records events, and judges the deceased in an elaborative manner. The author of an epigraph considered emotional demands of the client, referred reliable sources, and used persuasive transcription style to organize the contents of an epigraph. While utilizing a literary style that mixes parallel and classical prose in the preface and changes rhymes in the inscription became the trend until mid Koryŏ period, the portion of parallel prose style had gradually declined except in Buddhistic epigraphs. In some cases, an inscription was omitted, however, adding an inscription was common. The phrasing and rhyming method in an inscription was varied. In other words, lengthy ci poems and inscriptions in a stele changed rhymes in every 4th line, however, irregular rhyme change or using a single rhyme in the entire verse are frequently observed. During the Chosŏn period, a preface focused on recording in classical prose style, and a ci and an inscription adopted various structures, maximizing the writing ability of the author. In the meantime, a preface with the orthodox style almost never used Idu style literary Sinitic or vernacular Korean.

Keywords: stone stele, epigraph, *Kŭmsŏkchipch'ŏp*, *Kŭmsŏkchipch'ŏp*, classical prose, parallel prose, Idu script style literary Sinitic, rhyming system.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Dep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